# 澗松을 생각하면서

月灘 朴 鍾 和

澗松 全鎣弼君은 갔는데 나의 書室에는 澗松이 주고 간 金陵蘭草 한 盆이 依然히 놓여있다。시시때때로 이 蘭草 盆을 바라 볼 때 마다 澗松의 생각이 간절하다。

澗松이 그대로 無心하게 보라고 보낸 蘭草라 하드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澗松 생각이 날것은 常情인데 이 蘭草盆을 바라보면 더 한층 나의 가슴을 아프게 흔드는 由來가 있어서 바라볼 때 마다 더욱 그의 생각이 懇切하다。

지난 해 陰曆으로 十月은 나의 六十一歲 回甲이었다。나는 일체 回甲잔치를 폐하고 親知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請하지도 아니하였다。요사이 六十이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生日날자를 짐작하는 澗松은 내가 回甲宴을 벌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生日「前夜」에 나를 찾았다。손수 내 書室로 들고 들어온 것이 바루 이 金陵蘭이다。『여름에 찌저 심어 본 것인데 곧잘 가지가 터졌읍니다』하고 벙글벙글 웃음을 풍기면서 나에게 넘겨 주는 것이었다。나는 반갑게 받아서 册床위에 놓았다。다섯잎 푸른 줄기를 단아하게 싣고 있는 花盆은 白瓷로 되었는데 바로 古靑빛갈 그대로「花開萬國春」이라 글字가 씌여 있다。글씨가 몹시도 낯이 익었다。澗松의 글씨였다。『이것이 바루 年前에 分院白瓷를 본떠서 城北洞 北壇莊에서 만들어 봤다는 그 砂器가 아닌가、참으로 잘 되었구만 廣州 分院白瓷보다 못지 않은데 글씨도 澗松글씨지?』나는 感歎하기를 여러 번했던 것이다。『그때 이런花盆을 몇개나 만들었던가?』나는 잼처서 물었다。色澤과 光潤이 조금도 分院白瓷에 損色이 없는 까닭이었다。어느 점은 소박하고도 날렵한 품이 오히려 宋瓷를 聯想케 하는 때문이었다。『처음일이라 費用이 많이 들고 破가 너무 생겼습니다。그러나 생한것은 한 三十個가량 되어서 同好끼리 나누어 가졌읍니다』澗松은 담담히 웃었다。澗松은 이러한 훌륭한 創造까지 했던 것이다。만약에 그에게 資本이 있어서 이 事業을 繼續했더라면 기막힌 二十一世紀의 韓國白瓷가 다시 이땅에 나타나서 李朝白瓷以上의 瓷器가 美術品으로 뒷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全君은 갔는데 지금 나의 案頭에는 金陵蘭과「花開萬國春」의 現代白瓷花盆이 살아있다。澗松全鎣弼君의 얼이 이곳에 서리고 엉키어 있다。

더구나 나의 환갑 전날밤에 나한테 손수 가지고 온 이 蘭草와 花盆은 나에게 준뜻이 너무나 깊고 깊다。世俗的인 환갑잔치를 아니했다고 주었을런지 모를 일이다。너무나 맑고 깨끗한 過分한 紀念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澗松은 없어졌는데 澗松의 얼이 엉킨 손수 심은 金陵蘭과 손수 만든「花開萬國春」의 白瓷花盆은 날마다 내가 손수 玉露를 받으며 오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

(辛丑 三月 驚蟄날 밤에 씀)